

미국 마감 사항

2008.11.10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7일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폭락에 따른 저가매수세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반등.

미국 오바마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구제, 금융위기 확산 차단, 금융구제책 점검, 장기 성장동력의 확보 등의 정책을 발표.

미국 10월 실업률은 0.4%p 올라 6.5%를 나타내며 14년래 최고치를 기록. 이는 전망치를 0.2%p 하향하는 수치.

비농업부문 고용창출은 24만명이 감소하며 두 달간 50만명이 실직.

하지만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공조와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주가는 반등에 성공.

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6.11p(2.85%) 오른 8,943.81에 장을 마감. 2개의 종목을 제외한 28개 종목이 모두 상승. 거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가 9%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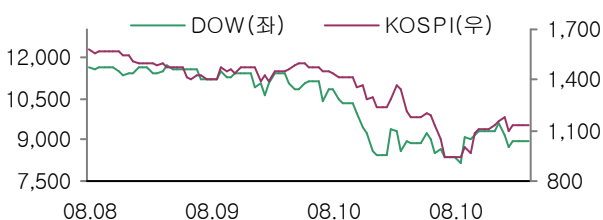
S&P500 지수는 10개 업종이 모두 오르며 26.11p(2.89%) 상승한 930.99를 기록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.70p(2.41%) 오른 1,647.40에 마감.

2.29%로 하락세를 이어간 리보금리도 증시 반등에 긍정적 영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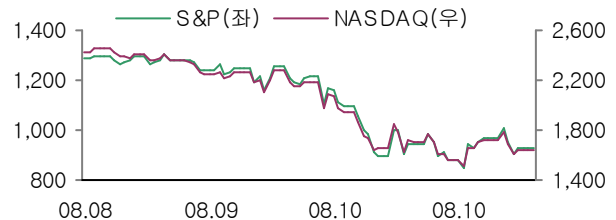
뉴욕유가는 소폭상승하며 27센트 오른 61.04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943.81	2.85	-4.09	6.74	-3.39	-21.76	-32.58
S&P(좌)	930.99	2.89	-3.90	6.18	-5.48	-26.47	-36.87
NASDAQ(우)	1,647.40	2.41	-4.27	6.14	-5.34	-30.07	-38.89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